

# 세계지방자치동향



## 지방재정

- (한국)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남양주시 사례

## 자치행정

- (독일) COVID-19의 대유행과 독일의 도시와 지방정부의 변화
-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의 공용차량 탄소중립달성계획(Carbon-neutral Fleet Plan)

## COVID-19의 대유행과 독일의 도시와 지방정부의 변화

### 개요

- COVID-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의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상 생활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음
-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각 국가의 통제정책으로 COVID-19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는 듯 보였으나, 2020년 8월 5일 이후 독일의 COVID-19의 일일 신규감염자가 1,000명대로 유지되는 등 2차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음
- 이에 독일의 각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대유행 이후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많은 부분에서 업무처리 방식, 생활양식 등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 임시 자전거 도로(Pop-up-Radwege)

- 많은 도시에서 COVID-19 대유행 이후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임시 자전거 도로(Pop-up-Radwege)를 꼽을 수 있음



출처: imago images / Klaus Martin Höfer

| 그림 1 |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자전거 도로가 확장된 모습

- 가장 첫 번째로 임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독일 서부지역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시장은 독일에서 임시 자전거 도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도시로 사민당(SPD) 소속의 토마스 가이젤(Thomas Geisel)과, 뒤셀도르프 시의회 의원 코넬리아 추쉬케(Cornelia Zuschke) 녹색당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시민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가진다면, 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차도를 놓는다면 더 많은 차량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자전거 도로를 놓는다면 더 많은 자전거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임시 자전거 도로 설치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시민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토마스 가이젤, 뒤셀도르프 시장

코로나가 도시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본다면, 다른 수많은 도시들과 같이 뒤셀도르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자전거에 대한 더 많은 공간을 요청했습니다.

- 코넬리아 추쉬케, 뒤셀도르프 시의회 도시계획, 건축, 토지 분야 녹색당 대의원

출처: [https://www.deutschlandfunk.de/stadtentwicklung-wie-die-corona-pandemie-unsere-staedte.724.de.html?dram:article\\_id=480836](https://www.deutschlandfunk.de/stadtentwicklung-wie-die-corona-pandemie-unsere-staedte.724.de.html?dram:article_id=480836)

- 한편, 독일의 자전거 단체인 ADFC(Allgemeiner Deutscher Fahrrad-Club)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자전거 교통량이 26%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도로 이용에 대한 회의론

- 임시 자전거 도로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뒤셀도르프 시는 초기 임시 자전거 도로 시행과정에서 두 차례 변경을 거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에 의회에서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기도 함
- 현재도 뒤셀도르프와 베를린뿐만 아니라 임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모든 도시에서 사고발생률 증가와 안전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베를린<sup>1)</sup>을 제외하면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초 시행지역인 뒤셀도르프 또한 8월 31일까지 시의회 의원들의 별도의 결의가 없으면 자전거 도로는 기존의 폭으로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임

1) IASS-Potsdam(포츠담 지속성 발전 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베를린 지역의 임시 자전거 도로 이용률이 66%에 이르고, 임시 자전거 도로 준치의 찬성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우호여론이 강하여 베를린 시 정부에서 영구적으로 자전거 도로 확장을 존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마을들

-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맞아 독일의 도시와 마을, 그리고 각 지방정부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임시 자전거 도로는 이러한 도전의 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음
-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마을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택과 토지 제도를 개편하고, 시민들을 변화된 이동행태로 유도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며, 독일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물론, 코로나 대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정책들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세수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의 악화, 각 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에 따른 인력 감축 및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 상태임
- 결국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도시와 마을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9월 이후 몇몇 도시에서 벌어지는 지방선거에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시사점

- COVID-19는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최근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가장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임시 자전거 도로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위의 사안들이 독일에서는 선거와 정치적 이슈로 까지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